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식 캠퍼스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청산 교수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네 인생은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대략 한 25년 정도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는데

35년 내외, 그리고 은퇴 이후에
15년 정도의 여생을 살다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가올 미래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
우리네 인생은 은퇴 이후에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래학 강좌는

태어나서 첫 인생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두 번째 강좌에서는

은퇴 이후의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미래학적 지혜를

모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은 ‘미래학자와 함께 하는

진로 여행’이라는 주제로

청소년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한

첫 번째 미래학 강좌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먼저 미래에 대한

진로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준비운동으로 우리는

과거, 현재에 대해서 정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미래와

어떻게 연결시키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거, 현재, 미래’ 라는

‘삼세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을 찾아보면

‘과거’는 지나간 세상,

한자로는 전세(前世)라고 하죠.

그리고 ‘현재’는 나타나 있는 세상,

현세(現勢)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강좌에서 주로 다루게 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세상,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한자로는 내세(來世)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연장선에서 우리의 문명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오래전에 인류가

문자로 역사를 기록하던 시점을

추정해서 거꾸로 가보면

농경시대는 부의 상징체계가 토지였으며

이러한 시대는

약 3,000년 정도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때는 특별히 교육이
생활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겠죠.

그리고 나서 지난 약 200여 년 동안은
기계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

그래서 이 사회에는 자본 또는 공장,
기계들이 주요 자산이 되는 시대였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일반적으로 ‘후기 정보화 시대’

보통 이렇게 지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화 시대는 지금까지

약 50여 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 시기의 부의 상징 체계는
접속이나 네트워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이버 콘텐츠나
지식 캠퍼스에서도 접속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이런 강좌를
만들고 있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도 현재고요.

그럼 미래의 시대에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

지난 3,000년 동안
농경시대 부의 상징체계는 토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200여 년 동안
산업 시대 때는 자본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접속과 네트워크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무엇이 부의 상징체계가 될까요?

아마 그것은 많은 미래학자가
지식재산권, 또는 로열티, 특허

이런 단어들이 부의 상징체계로
급부상하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를 전망하기 전에
우리가 가정해야 할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래를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적어도 2050년까지는

인류의 과학기술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제를 하지 않는다면

예측하기가 참 어렵겠죠.

두 번째로는 이 지구상에

1차 · 2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제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지 않으면

또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030년 이전에
적어도 인류에게는 대재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전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이론이나
근거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근거가 뭇기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는 이야기는

미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은하에는
인류 이외에 다른 문명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우리는 가지고

미래 이야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래의 시점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재단할 때

보통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의

경계지점에 있는

중간쯤의 미래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보다 미래학자들은

중간쯤의 미래에 더 중점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가까운 미래일수록

예측에 대한 신뢰도는 높겠죠.

반면에 예측에 대한

참신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일수록 예측에 대한

신뢰도는 여러 가지 변수의 출몰로 인해서

다소 떨어질지라도

참신성은 대단히 높아지죠.

이러한 두 가지의 장점, 약점들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중간쯤의 미래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가까운 미래이고,
어느 정도가 먼 미래이고,

어느 정도가 그사이에 끼어 있는 미래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미래는
5년 이내를 말하고요.

먼 미래는 50년 이후의 미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좀 더 세분화해서

아주 가까운 미래와 가까운 미래,
먼 미래와 아주 먼 미래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는 보통
1년 이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부분들인데요.
특히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라고 한다면

아마 아주 가까운 미래,
우리 아이가 1년 안에 과연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갖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되면
가까운 미래에 해당하겠고요.

가까운 미래는 보통 정치를 하거나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은 보통

임기가 4~5년 정도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 임기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관심을 갖겠죠.

그다음에 중간쯤의 미래는
현재로 기준으로 했을 때

15~20년 이후의 내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군대를 마치고
대학도 졸업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현재로 기준으로 15년 내외의 미래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중간쯤의 미래,

현재를 기준으로 15~20년 이후의 미래,
여기에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어나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정도 뒤니까

대략 한 2050년~2060년 이후,
이때를 먼 미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100년 이후를
아주 먼 미래라고 합니다.

어쨌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아마 2100년 이후의
먼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이 강좌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정리해 본다면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중간쯤의 미래, 다시 말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15년 내외의 미래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강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미래로 진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교육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부와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모님과 청소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하고

진로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진로 여행을

하나의 선박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로 운항하는

‘자녀교육 호’ 라고 이름을 지어보고요.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출발지는 현재가 되겠고요.

목적지는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항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이 항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탑승객은 바로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다면

선장 역할은 누가 해야 할까요?

선장 역할은 청소년의

모든 교육과 진로를 총괄하는 학부모가

당연히 선장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께서서는 배가 ‘현재’ 라는 출발지에서

‘미래’ 라는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항해사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나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 배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무사히 운항할 수 있도록

모든 기계나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사 역할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정부는

신중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목적지 좌표와 항로를 명확하게

설정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선생님들은 학생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항해를 해 나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선장의 역할을

수행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자기 주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탐색해 나가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미래 여행을 위한 준비운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래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